고 신문 담배 기사를 통해 살펴본 한국 근대사 속 담배와 금연

노진원¹ · 이예진² · 이승훈^{3*}

¹단국대학교 보건행정학과,

²울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³울지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A Study of Tobacco and Smoking Cessation Based on Old Tobacco-Related News in Modern Korean History

Jin-Won Noh¹, Yejin Lee², Seung-Hoon Lee^{3*}

¹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Cheonan, ²Department of Healthcare Management, Eulji University, Seongnam, ³Department of Neurosurgery, Eulji University Hospital, Daejeon, Korea

We examined tobacco-related news articles published from the 1890s to the 1940s to explore the background of the tobacco industry and advertisements;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related to tobacco consumption; and antismoking movements. Tobacco first became commercially available in the 1950s and continued to be used for nearly 80 years in Korea. However, the history of smoking cessation spans only 50 years. The long history of smoking represents the extent of harm caused by tobacco addiction, and the short history of smoking also represents the degree of fatal health effects of smoking. The concept of smoking cessation has recently been introduced in Korea. We plan to perform a retrospective study on public health perception regarding tobacco and smoking-cessation campaigns in modern Korean history and suggest directions for managing the current smoking situation and smoking-cessation policies.

Key Words: Smoking history; Smoking-cessation history; Tobacco-related news articles; Modern Korean history

Copyright © 2020 b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접수일 : 2020년 5월 8일
수정일 : 2020년 5월 30일
승인일 : 2020년 6월 3일

*교신저자 : 이승훈
울지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E-mail: nslsh@eulji.ac.kr

ORCID:
<https://orcid.org/0000-0001-7648-3617>

서 론

담배는 제조사가 의도한대로 정확하게 사용하면 사용자를 죽이는 유일한 합법적인 약물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무연과 유연담배를 모두 포함한 흡연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6백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 담배는 해롭지 않은 질병이나 비전염성 만성질환으로 인한 장애 및 사망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1) 이처럼 흡연은 전 세계 질병부담의 제1의 요인이며, 이러한 질병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금연이 제시되고 있다.

담배와 금연은 개인이나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담배규제에 관한 국제적 공조를 위해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이 채택되었다.(2) 우리나라도 2005년 FCTC에 비준하였으며 더욱 강화된 담배규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였다.(3) 특히 2014년 9월에는 2020년 성인남자 흡연율 29% 달성을 목표로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그간 금연구역 확대 중심의 단편적 정책에서 벗어나 10년 만에 담뱃값 인상, 2015년 6월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도입 확정 등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확립하고 금연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 및 청소년의 흡연율과 간접흡연 노출률은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정책 강화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여전히 남자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중 상위권 수준이다.(4) HP2020 (Health Plan 2020) 상의 2020년 성인남자흡연율 29%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자담배, 캡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 등 비가격 정책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담배규제 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담배 및 금연에 대한 의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아닌 역사·문화적인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00여 년 전 격동기 근대 한국인들에게 담배는 어떤 것이었으며, 어떻게 함께 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한국인들을 금연 운동을 하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난 담배 및 금연 역사를 통해 미래의 금연 및 흡연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

본 기고문은 1890년대부터 1940년대 고신문의 담배 관련 기사를 통해 당시 담배 산업과 광고, 담배 관련 정치·사회·경제적 상황, 금연 운동 등의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당시 담배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 인식과 금연 운동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 담배 및 금연 상황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현 담배 규제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론

1. 우리나라 근대 담배 산업의 상황

남아메리카 중앙의 고원지대가 원산지인 담배는 1558년 유럽에 전파된 것이 임진왜란 때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담배는 조선에서 매우 인기 있는 기호식품이었다. 하멜 표류기에 따르면 남녀노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며, 담배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연초 작물은 황금 작물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담배는 주로 각연초로 담배 잎을 잘게 썰어서 곰팡이에 넣어서 피우는 형태였다.

1800년대 말 개항과 함께 서양의 공장에서 생산된 담배 상품이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수입 담배는 일본제가 다수를 차지하

여 무라이형제 상회의 히로가 가장 인기가 있었고, 다음은 미국의 영미담배회사의 올드, 그밖에 중국, 이집트, 터키 등의 담배도 수입되었다. 당시 엽권 연초는 값이 비싸서 외국인이나 조선 상류계층에 의해서 소비되었고 초기에는 수요가 많지 않았다. 연초의 수입량은 1890년대에 들어 점차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장죽 즉 담뱃대의 사용을 금지로 인한 증가라고 볼 수 있다.

1896년 일본인이 서울에 직공 20명을 고용한 담배공장을 건설하였고, 1897년에는 영국인이 제물포에, 1901년 이후 일본인이 부산, 목포·대구 등 전국에 담배제조공장을 세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담배시장은 수입 외제 연초와 국내에서 외국자본에 의해 제조된 담배에 의해 상당부분이 잠식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선 말 개화파들은 개항 후 자주 부강한 근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대적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길준이 1882년 상회규칙(商會規則)을 저술하고 한성순보도 1883년 회사설(會社說)을 게재하는 등 서양의 산업 체제에 대한 사상이 도입되었고 기업체의 설립이 유행 하였다. 특히 정부 관리가 감독하고 상인들이 운영하는 관독상판형(官督商辦型)이란 독특한 형태의 기업이나 공장들이 설립되었다. 그 결과, 담배제조회사로는 1883년부터 권연국, 순화국, 금화연무국, 연무국, 연화연무국 등 연초 제조소 및 판매소가 설립되어 수입 담배에 대항하였다. 1910년까지 12개 연초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신석연초(한일합자, 1903), 곡향합자회사·반도제연사·반송제연사·광성상회(1904), 대한연초주식회사(1906), 동지상회(1909) 등이다. 대한연초주식회사는 김중환 등이 주도한 것으로 당시 대자본으로 일본 법령에 따라 창립된 최초의 한인 주식회사가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근대화의 새로운 물결은 곧바로 이어진 일본제국주의에 의해서 제압되어 대부분의 회사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라진다.

2. 우리나라 근대 담배 판매 광고

담배는 당시 가장 대표적인 기호품으로 광고에 의한 판매가 가장 활발하였던 제품이다. 미국의 경우 신문 광고에서 시작하여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담배카드의 등장, 여성을 상대로 한 광고 그리고 다양한 판촉기법의 발달 등으로 급격한 판매 성장을 이루었다. 선진 광고 기법이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었고 일본과 미국이 서로 쟁탈전을 벌였다. 특히 영미담배회사는 활동사진 관람, 열차 박람회 등의 선진 문화를 이용한 막강한 판촉을 하였고, 일본 담배회사는 다양한 신문 광고, 고종 황제 사진이 들

어 있는 담배카드 그리고 친왕의 일본 유학 등을 이용한 담배 판촉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공진회에서 무료 담배 배포, 담배 빈 갑을 10개 가지고 오면 새 담배 한 갑을 증정하는 사은행사가 있었다.

여성을 광고에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의상을 입은 여성 담배 카드, 여성의 흡연 장면 신문광고를 한 조선연초회사, 그리고 당시의 연예인이었던 기생을 이용한 판촉을 하였다. 그 당시 신문 판촉에 활용하던 미인투표를 동서연초회에서 담배 판촉 이용하기도 하였다. 미인투표의 방법은 담뱃갑에 삽입되어 있는 투표용지에 기생들을 이름을 적어 넣는 일종의 인기투표로 진행되었는데 상금과 경품이 있었다. 그밖에 당시 최신의 교통수단이었던 전차 지붕, 회사 건물, 전차표에 담배 광고를 넣었다.

3. 우리나라의 근대 금연 운동

1) 국채 보상운동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민족지도자들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금연운동을 제창하였다. 1907년부터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은 경제주권 수호운동으로 금연함으로써 절약한 돈으로 외채 청산을 하자는 정신이 있었다. 처음 국채보상운동을 발기한 사람들은 대구의 지식인들이었지만, 운동의 확산을 주도한 것은 인천·원산·평양·부산·진남포·개성 등 각지의 상인들이었다. 따라서 금연운동은 단순히 건강 혹은 신앙 상의 이유가 아닌 민족운동과 관련된 것이었다.

2) 금주단연운동, 물산장려운동, 계몽운동

3·1운동 이후 우리나라는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사회·문화·경제·교육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민족 산업의 육성과 경제 자립을 위한 대중운동으로 물산장려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금주단연운동은 물산장려운동의 한 형태로 일어났으나, 1923년부터는 거의 매일 금주회나 단연동맹회에 대한 보도가 나올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일어난 전 민족적 운동이 되었다.

동아일보 1920.09.02.

진남포 조선인 중매조합에서 조합원 120여명이 상호 교풍 및 경제사상 함양을 위해서 만장일치로 금주 금연을 선언했다.

동아일보 1922.12.21.

건강에도 나쁘고, 세금이 비싸서 경제적으로도 부담되는 담배를 끊는 운동이 신의주 운정정 상품중매조합에서도 일어났다.

3) 기독교 선교사 및 절제 운동

한국 기독교에서 금주, 단연운동이 조직적으로 시작된 것은 1900년대부터였고 절제운동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되었다. 1911년에 주한 선교사들은 기독교 절제회를 조직하여 금주, 금연 운동을 전개했다. 평양, 황해도 등지를 중심으로 계연회가 조직되었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금연으로 절약한 돈을 모아 외지에 전도인을 파송하는 전도운동을 겸하였다. 금주·단연운동은 1930년대 전국적 운동으로 전개되어 1935년 2월 10일이 금주의 날로 선포되었고, 기독교 여자절제회와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 등이 주최하는 금주 가두 행렬, 금주 강연회 등이 전개되었다.

동아일보 1936.02.05.

조선기독교절제회에서 음력 정월 보름날을 금주단연의 선전 날로 정해 해마다 전조직적으로 선전 행렬과 비라의 산포, 강연 등 주최되어 왔거니와 금년에도 정월 대보름인 오늘 2월 7일에 경성부 인사동 조선기독교절제회 연합회에서 전국 140여 절제회에 지령을 발하고 만반의 준비를 진행 중이다. 동원될 회원만 4천여 명이며 이들이 주체가 되어 행렬과 강연이 있을 것으로 여기에 동원될 인원은 수만 명에 달하리라 한다.

4) 일제강점기의 금연기사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세 가지 신문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시절 담배의 해악을 알리는 신문기사를 검색하였다.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1920년에 각각 창간된 한글 신문이었다.

금연에 대한 대부분의 신문기사는 48건으로 대부분이 1930년대에 게재되었다. 가장 많은 내용은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피해에 대한 것으로, 니코틴에 의한 질병으로 위염·기관지염·축농증·동맥경화·심장병·뇌출혈 등 다양하게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부녀자와 어린이에 대한 흡연의 악영향에 대한 내용도 다수 존재하였다. 특히 여성은 피부가 처지고 피부색이 창백해지는 등의 미용적인 면이 강조되었고, 태아에 대한 악영향과 동시에 수유로 인한 문제점들이 기술되고 있었다. 암에 대한 내용은 구순암, 설암, 위암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또한 담배를 끊는 방

법, 그리고 피해를 적게 하는 법들이 소개되었으며, 담배는 건강에 해가 되니 끊어야 한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매일신보 1931.08.27.

급성 니코틴 중독은 생명이 위험. 자녀에게까지 해로운 술과 담배 니코틴은 독성이 강하여 0.05그램은 치사량입니다. 급성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면 안색이 창백해지고, 도통이 나며, 군침이 나고, 어지러움증과 설사, 맥박이 약해지고, 심장의 고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증세가 중할 때는 인사불성이 되고 경련이 일어 나기도 합니다.

매일신보 1935.02.07 담배는 정말로 몸에 해로운 것인가?

의학상으로 본 담배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할 사람. 첫째, 심장이 약한 사람은 담배를 먹으면 안 된다. 심장에 직접 영향을 주어 숨이 차고, 식욕감퇴, 수면 장애가 온다. 둘째, 호흡기병, 천식이 있는 사람, 인후를 상하게 한다. 셋째, 위장 계통의 이상이 있는 사람. 위 카탈의 원인이 되며 위벽 손상, 넷째, 장 점막에 영향을 주어 변비 및 설사가 온다.

동아일보 1935.12.21. 뇌출혈의 원인은 담배가 25퍼센트

동맥경화의 원인은 알코올이 25퍼센트, 담배가 25퍼센트, 매독이 25퍼센트, 장의 중독으로 오는 것이 25퍼센트라고 합니다.

매일신보 1926.08.29 여자와 담배.

젊은 여자 간에 담배 먹는 것이 유행한다. 젊은 부인 특히 여학생까지 담배를 먹는다. 살 빠려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해로움이 많다. 피부의 빛이 창백해지고, 피하 지방이 감퇴하여 검어지고, 피부의 긴장미가 없어진다. 또 시력이 감퇴되고, 눈에 생기가 없고, 치아가 검어져 광채가 없어진다.

동아일보 1931.12.25.

부인의 담배질은 인류번영에 해독. 유아의 사망률이 많아진 다. 미국에서 생후 1개년 이내의 유아 사망률이 놀라운 고율에 달하므로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부인의 껍연이 그 원인의 하나 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니코틴 중독을 받은 어린아이는 간장을 해하여 그 사망률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매일신보 1935.06.24 무서운 담배의 해독 나이 적은 사람일 수록 심합니다.

1. 입안에 들어간 니코틴은 즉시 어린이의 혈관으로 흡수되어 심장, 신경계통에 작용되어, 말초혈관, 말초신경은 제일 먼저 침범 당하고 그 결과 안색이 창백해지고, 수족이 차가워지며, 마비되고 오래되면 혈관이 막힌다.

2. 뇌신경을 침입한 니코틴은 기억력을 감퇴, 두통, 돌발적 흥분, 불면증이 생기고 학업성적이 나빠진다.

3. 침과 함께 삼킨 니코틴은 위속에 들어가서 소화계통의 신경을 침범하여 만성위장병, 영양불량, 발육부진에 빠진다.

5) 청소년의 흡연 및 금연

소파 방정환이 1930년 3월 증의일보에 발표한 '담배갑'이라는 동화에서도 당시 청소년 흡연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동화는 서울 어느 소학교에서 학생들을 운동장에 집합시켜놓고 교사들이 담배를 소지한 학생들을 적발해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 기사에서는 어린이가 담배를 피우다가 집에 화재를 일으켰으므로 소년 흡연을 금지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볼 수 있다.

1930년대 들어서는 담배가 특히 미성년자에게 해롭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성년자들의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자 총독부는 1938년에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금주·금연법을 제정한다. 일본에서 이 법이 제정된 것은 1900년이였다. 이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흡연과 음주가 금지되었고, 흡연을 묵인한 부모나 판매자는 처벌을 받았다.

동아일보, 1938.02.03.

미성년자에 대한 금주금연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것이 누차 논평한바 있는데 총독부 당국에서 조선인의 체위 향상을 위하여 미성년자의 금주금연법을 시행하고자 심의를 하고 있었는데, 조선인 지원병제를 실시로 조선인의 체위향상이 조선인의 긴급한 문제로 되게 되었다.

결 론

본 기고문은 1890년대부터 1940년대 고신문의 담배 관련 기사를 통해 당시 담배 산업과 광고, 담배 관련 정치·사회·경제적 상황, 금연 운동 등의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당시 담배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 인식과 금연 운동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 근대사 속 담배와 금연은 1950년대 담배가 유입되면서 시작된다. 조선의 담배는 주로 각연초로 고평대에 넣어서 피우

는 형태였다. 이후 1980년대 담뱃대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껴련의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외국자본이 유입되면서 담배시장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조선말 개화파의 근대화와 맞물렸으나 곧 이어진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곧 수그러지게 된다. 우리나라 근대의 담배광고는 담배와 함께 외국의 담배 광고 기법이 유입되면서 인쇄, 문화 등과 결합한 다양한 선진 형태의 광고가 등장하였다. 특히 당시의 연예인이었던 기생을 이용하는 광고가 존재하였다.

금연운동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의 일환으로 금연운동이 시작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민족운동과 관련한 것이었다. 3·1운동 이후 물산장려운동의 한 형태로 금연운동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동시에 한국기독교에서 절제운동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다.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금연 인식은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대부분 니코틴의 피해를 중심으로 담배의 부정적 건강 영향을 이유로 한 금연 인식이 시작되었다. 청소년에 대한 금연 인식은 1930년대에 시작되었다.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흡연과 음주가 금지되었고 흡연을 묵인한 부모나 판매자는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한국 근대사속 담배는 1950년대부터 시작하여 근 80

년에 이르는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금연의 역사는 이제 겨우 20년이 되었다. 최초의 담배 시작을 고려하였을 때 600년에 이르는 흡연의 역사는 담배의 중독성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준다. 또한 50년의 금연의 역사는 흡연의 건강 피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대변한다. 흡연의 역사는 길지만 금연의 역사는 이제 시작되었다. 과거 근대사의 담배 및 금연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현 담배규제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1.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WHO global report on trends in prevalence of tobacco smoking 2015.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2.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6 global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Available at <http://www.who.int/fctc/reporting/2016-global-progress-report-who-fctc.pdf?ua=1>.
3. Choi S, Kim Y, Oh K. Tobacco Control Policy and Smoking Trends in Korea. Division of Health and Nutrition Survey,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CDC: 2017 May 25.
4.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ealth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2015.